

마음의 대화에서 느낀 희열의 순간

책임기로 얻은 인생의 깊이

이은봉

덕성여대 교수 · 종교학

나처럼 책임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특히 어떤 한 책을 들어 그 책이 나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고 극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회고해보면, 나는 책임기를 참 좋아했다. 초등학교 시절에 나에게 많은 상상과 꿈을 심어준 책은 《소공녀》와 같은 동화책들이었다. 많은 동화책을 읽었다. 동화의 세계가 너무 아름다웠기에 상상 속에서 꿈 많은 나의 어린 시절도 그 나름의 정신적인 깊이와 체계를 이루었을 것으로 기억된다. 소설 속 주인공의 사랑이 현실의 사랑과 중첩되어 승고한 남녀의 사랑에 대한 동경의 감정이 깊어졌다.

운동과 책 읽기가 전부인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접어들면서는 동네에서 친구들과 독서 서클을 만들어 자기가 읽은 책에 관해서 감상을 말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임을 가졌다. 그 모임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상당히 여러번 만났던 것 같다. 당시 김 모라는 친구가 그 모임을 주도했는데, 그는 우리들이 모두 동경할 만큼 독서를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았다. 그러나 친구들과 사이에는 자기 힘에 버거운 책을 읽고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분위기도 있었던 듯하다.

나는 김 모가 읽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전쟁과 평화》를 재미있게 읽을 수가 없었다. 너무 복잡하고 방대하여 내가 쫓아가기에는 지루했다. 그렇지만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이야기에 대하여 나도 알은 체하며 끼어들었던 기억은 있다.

당시는 텔레비전이 없고 영화관에 자주 간다는 것이 힘들었던 만큼 정신적 자양이 되는 것은 오로지 책을 읽는 길밖에 없었다. 동네에는 헌책방이 몇군데 있었는데 거기서 약간의 돈을 주면 빌려 볼 수 있었다. 학교의 시험기간이 끝나면 헌책방으로 가서 책을 빌려다 읽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다. 운동과 책읽기, 이것이 고등학교 시절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나치게 나를 모범생으로 과장하는 것으로 들릴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취미로 가질 수 있었던



일러스트레이션/노희성

것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즘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내가 읽은 책들은 대체로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준 책이고, 다른 하나는 비록 바깥 세상에 대해 특별히 많은 것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나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해준 책이다. 역사책이나 동물에 관한 책, 기행문 등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철학이나 종교에 대한 책, 시나 소설 등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대체로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정신적 경향이 있었다. 고등학교 독서 서클 멤버였던 이모라는 친구는 전자의 책을 많이 읽었다. 그 친구는 역사와 동물들의 이야기에 취미가 있었다. 지금 생각하기에도 그는 역사에 대하여 참 많이 알고 있었으며, 역사 성적은 항상 우등이었다.

사람마다 기질과 취미에 따라 다양한 독서경향도 생기는 것이겠지만 후자의 독서

경향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이런 방면의 책임기를 특히 추천하고 싶어진다.

연애편지처럼 즐겨 읽던 고전들

전에 우리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할 때의 일이었다. 기독교 신자인 한 부인이 자문을 구해왔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은 성경읽기를 강조하고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펼쳐들면 단 십분도 못되어 졸음이 와서 더 이상 읽을 수 없으니 어찌된 일인가하고 물었다. 나는 이 질문을 받고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부인에게 물었다. “만약 부인에게서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연애편지를 받았다면 그 편지를 보면서 읽을 수 있을까요?”

그 부인은 “그렇지 않겠지요”하고 대답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책은 부인에게서 믿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부인에게서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하느님이 부인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말씀을 즐면서 읽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성경책이 맛있는 말씀으로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부인의 마음이 부딪쳐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하느님의 성령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에게서 온 편지는 몇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만약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사전을 찾아서라도 알려고 할 것이고, 아주 상징적인 시를 하나 덧붙여 보았다면 그 의미를 해독하려고 몇번이고 반복해서 읽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고전들은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꼭 성경만이 아니라 고전의 작가들은 인류가 낳은 위대한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남겨 놓은 책들은 인류에 의해 이미 평가되었기에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책을 읽을 때에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즉 마음으로 끊임없는 대화를 하며

집짓기의 즐거움

새 집을 지으실 계획이랑요?
저희와 상의해 주십시오.
아름다우면서도 견고한 건축물이 되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집필 : 자서전 · 회고록 · 개인출판 및 문학 · 위인전 등
운문 :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리라이팅
교정 : 사전류 · 참고서류 · 한서 및 학술서적 등
편집 : 백과사전 · 잡지 · 사보 등

기계설비

매킨토시 6대, 집필/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4대
스캐너 2대, 인화지/필름 출력기 1대
● 24 시간 출력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아래아한글 3.0, 프로 96).



함께 일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내용 중 특히 교정·교열 쪽의 일을 자신있게 해낼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경력이 반드시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일을 해보신 분이었으면 합니다. 근무 시간은 9~6시이며 토요일은 격주 휴무입니다.



三現編輯室

대표자 : 김문권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 549-6883~5 팩 스 : 549-6877
천리안 ID : SAMYEUN

책읽기를 통해
수많은 고전작가들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며
희열을 느꼈던 순간들은
나에게 자신감과 힘을
주었다. 사랑하는 애인에게서
온 편지는 몇번이고 반복해서
읽듯이 위대한 정신이 살아 있는
고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읽어야 한다. 책 속의 문장과 문단 사이에서
피어오르는 위대한 정신의 살아 있는
영(靈)들이 나의 정신과 부딪칠 때에 나의
정신은 그들과 공명·승화되고 자기도
모르게 성숙된다.

사실 인간의 마음은 다 같은 것이다.
2500년 전의 공자의 마음이나 나의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다. 다만 일찍이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인류 보편의 정신을 책 속에
구현해놓았을 뿐이다. 미이리가 된 활자에서
살아 있는 공자의 정신을 일깨워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책읽기이지만, 사실은
공자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공자적인 정신을 일깨우고 있을 뿐이다.

회고해보면, 책읽기를 통해 수많은 고전
작가들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마음의 희열과 기쁨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 자신감과
힘을 주었다고 믿는다.

손에 쥘 순간 내 안에 있는 책

그러나 책읽기와 함께 글쓰기를 통해
더욱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고백한다. 책읽기와 글쓰기는 다 같은
정신적 행위이다. 책읽기도 표면적으로
보면 수동적으로 책 속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만 보기 쉽지만, 그렇게 하면 줄면서
성경을 읽는 부인과 하등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책을 읽으면서 적극적인 마음의 대화를
나눌 때에 나와 작가의 마음은 서로서로

스며들고 상승작용을 일으켜 정신이
고양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러므로 책읽기는 하나의 행동이며
행위이다. 그렇지만 정말 원숙한 독자는
자기 자신이 글쓰기를 직접 병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정신 속에서
번뜩이는 마음의 움직임을 글로
포착해보려는 시도를 하면 고전 작가들의
정신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대학시절에 시쓰기를 많이 해보았다.
마음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무언가를
포착하여 표현해보려는 시도는 많은 고통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의
모험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우선 내가 시쓰기를 해봄으로써 남의
좋은 시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시를 보는
안목도 높아졌다. 시쓰기를 비롯하여 어떤
것든 글쓰기를 많이 해보는 것은 다른
고전 작가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동료로
삼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책읽기를 통하지 않고는 인생의 깊이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정보화
시대가 되어 쉽게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인생의 깊이는 자신의
정신적 행위를 통해 도달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인
고전작가들과 '만남' 으로서만 가능해지는데,
그 만남은 책읽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책은 나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든 순간 내 안에 있다. ❖